



### 묵어 무지개의 아름다움



도수 정업도량 회주

80년대 초, 신군부세력이 정권장악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 시절은 당시 발간된 소설의 제목 <어둠의 자식들>이 말해주듯 숨쉬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던 때였다.

어느 날,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자기 교회에 와서 법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목사님은 바로 <어둠의 자식들>의 실제 주인공이며 빈민운동가로 유명했던 허병섭 목사님이였다.

지금도 종교 간의 교류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더욱 어려웠다. 당시 그 교회에서도 나의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독교도가 있어 내게 사비를 걸어오기도 했지만 허 목사님이 적극 만류해 큰 탈은 없었다.

최근 불교와 천주교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매우 반가웠다. 대구지역에서 스님과 신부님이 절과 성당을 오가며 강연을 하는 일이 잦아지는가 하면,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를 위해 301번 정진 중인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의 이야기는 자못 감동적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정도까지 밖에 오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아직도 많은 종교인들이 아집과 독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 종교의 전파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지개는 여러 빛깔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생명수나 휴거를 주장해야만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다. 자기 종교만을 앞세우다 화합과 상생의 길을 멀리하고 양심과 이성과 인륜을 마약처럼 마비시킨다면 그 어느 종교든 사이비이며 이단이 아니겠는가.

### 용호복지관 독거노인 장수잔치



철순, 팔순, 구순을 맞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홀로 어르신'을 위한 장수 잔치'가 열렸다.

용호복지관(관장 혜종)은 5월 29일 2층 강당에서 24명의 어르신들께 잔치상을 차려줬다. 이날 장수 잔치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케이크 자르기, 생선선물 증정에 이어 봉사단체 '정다운 회'의 노래공양, 어린이들의 무용 등 다양한 어울림 한마당 공연이 마련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장문숙씨

###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민의 희망?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요즘 전북지역 곳곳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관(官) 주도의 쟁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관련단체를 통한 대규모 쟁기대회에서는 으레 '새만금사업=전북도민의 희망'이라는 구호가 난무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반대·회의파들은 입력까지 받고 있다고, 마치 70-80년대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던 하던 반공 쟁기대회의 명령이 되살아난 느낌.

막스 베버가 말했듯이, '세상은 언제나 악마의 지배 아래 있으며, 누구든 일단 정치권력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이미 이 악마적인 힘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베버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책임유리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반대로 말한다. '인간은 어차피 사악하고, 위선자이며, 물욕에 눈이 어두운 속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베버씨나 마키아벨리씨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지금 우리사회에 난무하는 주의(主義)와 주장을 다스릴 묘안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편들지 않는 것보다 현명한 처세는 없어 보인다.

편들지 않는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편들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정말로 애매한 경우다.

나이스(NEIS)를 둘러싼 싸움은 인권 보호와 교육행정 효율성이라는 사회적 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싸움이다. 이런 갈등은 인권과 효율성에 대해 동일한 도덕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데서 발생한다. 인권은 효율성보다 높은 가치임에 틀림없으며, 그래서 폐기론자들은 당연히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싸운다. 하지만 나이

스 폐기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스가 심각한 정보유출이 아니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미묘한 사안에 대해 우리는 맨 정신으로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다. 우리는 특정한 신념(이데올로기)을 동원해야 하며, 이런 신념에 기초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선택(tragic choices)이 되고 만다.

두 번째로는 어느 쪽이 옳은지 않지만, 옳음보다는 좋음을 선택하는 도덕적 기회주의자로 남는 경우다. 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사업의 제

스 폐기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스가 심각한 정보유출이 아니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미묘한 사안에 대해 우리는 맨 정신으로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다. 우리는 특정한 신념(이데올로기)을 동원해야 하며, 이런 신념에 기초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선택(tragic choices)이 되고 만다.

두 번째로는 어느 쪽이 옳은지 않지만, 옳음보다는 좋음을 선택하는 도덕적 기회주의자로 남는 경우다. 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사업의 제



### 불자 세상보기

구승희

동국대 윤리학과 교수

## 편들지 않고 살기

스 폐기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스가 심각한 정보유출이 아니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미묘한 사안에 대해 우리는 맨 정신으로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다. 우리는 특정한 신념(이데올로기)을 동원해야 하며, 이런 신념에 기초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선택(tragic choices)이 되고 만다.

두 번째로는 어느 쪽이 옳은지 않지만, 옳음보다는 좋음을 선택하는 도덕적 기회주의자로 남는 경우다. 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사업의 제

스 폐기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스가 심각한 정보유출이 아니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미묘한 사안에 대해 우리는 맨 정신으로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다. 우리는 특정한 신념(이데올로기)을 동원해야 하며, 이런 신념에 기초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선택(tragic choices)이 되고 만다.

두 번째로는 어느 쪽이 옳은지 않지만, 옳음보다는 좋음을 선택하는 도덕적 기회주의자로 남는 경우다. 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사업의 제

스 폐기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스가 심각한 정보유출이 아니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미묘한 사안에 대해 우리는 맨 정신으로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다. 우리는 특정한 신념(이데올로기)을 동원해야 하며, 이런 신념에 기초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선택(tragic choices)이 되고 만다.

두 번째로는 어느 쪽이 옳은지 않지만, 옳음보다는 좋음을 선택하는 도덕적 기회주의자로 남는 경우다. 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사업의 제

속이나, 중단이나의 싸움은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사회적 선의 경중을 가리는 싸움이다. 이런 싸움은 대체로 사안의 우연적인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 왜 우연적인고 하니, '어떤 경우에도 환경을 파괴하기 위해 간척사업을 시작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는 대립적인 요소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연적인 외적·사회적인 요소가 개입되면서 정책결정자들의 용의주도한 눈치 보기에 치질이 생긴 경우이다.

세 번째는 두개의 상충하는 가치 말고 제3의

## 열린마당 | 경불련, 노숙자 복지 불교계의 역할

최근 노숙자가 다시 늘기 시작한 가운데 불교계의 노숙자 복지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정책위원회가 '노숙인 복지와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5월 23일

개최한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도 지난 98년 IMF 사태 이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의 현실과 이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필자>



경불련 제2차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노숙인 복지와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핵심은 주거문제, 불교계 후원 절실

### 조성준(노숙자대책 종교협 간사)

### 실무자, '수행자' 아닌 '실천가' 돼야

'노숙인 보호사업'이란 영역에서 실무자로 활동한지 5년째다. 사실 그간 '노숙인 복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다. 지난 98년 국가부도 사태 이후 정부와 민간복지 단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노숙인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당시의 노숙인들의 처참한 모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완화되거나 숨겨진 것뿐이다.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자들의 노력은 부단히 이어져 왔지만 현장 실무자들도 지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고된 근무환경, 자기비전의 부재, 정체성 상실, 답답한 현실 등의 이유로 하나둘씩 이곳에서 떠난다. 특히 경제문제와 근무환경이 실무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는 '노숙인 복지의 실무자'가 아닌 '노숙인 복지사업 종사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탓이다.

노숙인 복지는 '사업'이 아니다. 노숙인을 위해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갈림길에 서 있는 정부의 노숙인 보호사업이 '노숙인 복지'를 실천을 뜻하는지, 아닌 '노숙인 복지사업'을 의미하는지, 현장 실무자들은 선택해야 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다. 정부는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같은 '노숙인 복지사업'의 제도화로의 제도화를 선호하고 있지만 현장 실무자들은 '노숙인 복지'를 실천하는 활동가가 돼야 한다고 본다.

### 김도진(구세군 총정로 사랑방 총무)

### 재활·자활 사업등의 프로그램 필요

구세군의 실직노숙자 사업은 1998년 정동 다일사 개선을 시작으로 전개됐다. 이후 구세군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실직자와 실직노숙자들을 위해 쉼터와 상담센터, 자활의 집, 무료급식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숙소와 식사 제공, 취업정보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의료 및 사회적 재활을 위한 정신교육 등이다.

취업 상담은 중소기업, 노동부, 각 기업체의 취업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또 사설 직업 교육 훈련기관, 구청 등 공공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담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전담해, 개별·집단·의료·귀가 및 귀향·심리 등의 상담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다.

구세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재활 및 자활사업이다. 이 사업은 알코올 상담, 대인관계 상담 등의 재활사업과 금전관리, 창업 지원 등의 자활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자활센터는 재교육 정보 제공, 건설 인력 시장 확보, 서대문고용양성센터와 자체결연, 후원처 개발 등의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다. 또 자립의욕이 있는 노숙자에게는 '봉어빵 창업' 등 소규모 사업을 벌일 수 있게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구세군은 이를 위해 '구세군 자활 노점 창업' 프로그램 15개를 개발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최윤숙(경불련 아침을 여는 집 상담실장)

###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 중요

서구 사회는 노숙인의 문제 핵심을 주거문제로 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현재 불교계의 노숙인 복지는 쉼터 중심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제부터는 노숙인의 문제를 '주거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편견이다. 두려움과 공포 등의 감정일 거라는 편견의 뿌리는 약자들인 이들 노숙인들을 멀리하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숙인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란 시선이 문제다. 이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불교계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2002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자 중 1,129명(69%)이 일용직, 임시직 등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실에서 불교계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선 노숙인 복지를 위해 사찰과 불자들의 후원이 절실하다. 이는 불교계 노숙인 복지단체들이 사업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정적 열악한 후원구조로 한계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사찰이 지역사회에서 노숙인에게 관심을 갖고 불법을 전파해야 한다. 특히 불교계는 노숙인 문제의 핵심은 주거문제임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

# 유보

2003년 6월 6일 동화사에서 개최예정이던 중단대 화합을 위한 결집대법회가 유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준비가 완료되어 일정이 잡히면 다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동화사 주지 지성 합장

## 유제이탈, 콘달리니 각성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고의 빛과 소리 테크놀로지 - 노바프로100

노바프로100 기본사양      오라진동 쿨선 옵션사양



\*명상, 일렉세이션, 학습, 창의력 등 100세션  
\*미 진보된 세션을 창조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세션  
\*CD나 카세트 음악을 광안정 볼륨으로 전환가능  
\*순백색안경과 고급 다이아몬드 헤드폰 등  
\*미국 프로소닉사 제품-뉴욕 타임즈 기사 내용

"예전에 당신은 화롯가의 점멸하는 불빛에 의해서 마음이 안정되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빛과 소리 기기가 당신을 이완시켜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라고 빛과 소리 기기의 사용자들은 말합니다...사용자들 중 일부는 세션 동안 이완되어서 수면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즉각적인 창의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의 감각을 얻지 못했지만 나는 빛과 소리 기기가 적어도 나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명상에 잠기도록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리 기기는 명상 동안 방황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점멸하는 빛은 집중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Rick'n'박사는 "우리는 명상 하는 동안 집중할 수 있다면 뇌파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빛과 소리 기기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의식의 변형을 가속시키고 명상과 일렉세이션 기기가 될 수 있다...빛 자극은 수동적이다: 당신은 릴렉스 이외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작동하게 놔두기만 하면 된다. 빛 자극은 두뇌의 인산염(phosphate) 수준을 상승시키고, 두뇌 대사작용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신경 통로들, 통조라고 부르는 과정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뉴욕 타임즈 2003년 1월 30일

이 기기는 노바프로100을 생산하는 같은 회사 제품인 인나팔즈 사인과 함께 실린 기사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우송해드리고 상담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766-6343

## 사찰음식의 대중화 선언!

이여영의 새롭게 선보이는 358가지

# 자연 건강 사찰 음식

- 자연 건강 사찰음식 제12기생 모집 -



전원 값 38,000원

문의: 전화 (02)3210-3397 H P 018-236-8734

자연건강사찰음식 연구원

원장 이여영

"이여영님은 30여년 동안 사찰음식을 연구하고 생활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노고와 정진에 대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찰음식을 통해 맑고 건강한 몸과 생활을 가꾸어 가기를 기원드리며 그 공덕으로 우리 사회와 자연이 똑같이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正大

사찰음식의 특징은 어육류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데 있다. 이것은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 수련의 승화된 경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제철 통광

## 자연 건강 사찰음식 제12기생 모집 안내

- 일시: 6월 10일 (매주 화요일)
- 과정: 1년 과정
- 장소: 감로당